The comparative study in the origins of ssireum (Korean wrestling) and sumo (Japanese wrestling), their match process and managements of tournament

Song, Il-Hun · Lee, Dong-Heon (Hanyang University) · Son, Soo-Beom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traditional wrestling and Japanese wrestling’s origins, match types and histories of tournament. I made a comparative study of problems about traditional wrestling’s match process and management of tournament. For the improvement in ssireum, I proposed an alternative plan to integrate Japanese process with Korean traditional wrestling. There are 4 aspects which are full of suggestions.

First of all, Japan has six arenas for the national sport only. So, Japanese can consider sumo a national sport. On the other hand, Korean wrestlers and interested people have wandered over the whole country because there is no arena for ssireum in Korea. Even, they seem to be a circus troupe.

Second, ssireum’s match is fair with lively tricks and management of tournament through single round system tournaments in 15 days but ssireum tournaments match for 4 days. Accordingly, it causes serious problems: not only someone who is dropped off at an elimination contest cannot watch other good players’ match in case of the best wrestlers’ elimination match but also the best wrestlers are placed in one side.

Third, spectators are so excited in sumo because sumo wrestlers’ ceremony and their features are Japanese traditional style based on historically investigated literature. Unlike sumo, ssireum cannot attract spectators its appearances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historical literature.

Lastly, since sumo’s wrestling match is close to the seats for the audience, it can build realism vividly but ssireum’s one is far from the seats.

We survey Korean traditional wrestling and Japanese wrestling’s origins, match types and histories of tournament so far. Through this, we should grasp our traditional wrestling’s problems and integrate Japanese process with ours to make up for ssireum’s weak points and further, we must proceed to study to develop our traditional wrestling ssireum in the concrete.

Key words : ssireum (Korean wrestling), sumo (相撲) (Japanese wrestling)
* tibpr69@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살과 삶이 부딪히고, 숨(嘘)과 숨(嘘)이 거두며, 상대의 맥박을 자기 자신의 숨결처럼 느끼면서 몸 위를 건듯이 모래판에 무궁(無窮)을 담아 음양의 이치인 태극의 그림을 그리는 신체의 유희. 이는 바로 우리 민족 고유의 신체 활동인 민족 씨름이다.

민족 씨름은 두 사람이 서로 다리와 허리에 뻗은 손발을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의 발바닥 이외의 신체 부분을 모래판에 먼저 닿아 넘어뜨리는 경기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씨름은 몸(身體)과 혼(魂)이 닿긴 신체 활동이었으며, 나아가 민족 씨름이 형성되었던 씨름판은 남녀노소가 모여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소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민속 씨름은 주로 어떠한 시기에 행하여졌는가, 이와 관련한 문헌 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민족 씨름은 주로 농경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경기로 행하여졌다. 음력 5월 5일 당오(當午), 음력 7월 보름의 백중(白中), 음력 8월 추석(秋夕)이 되면 마을 청년들이 민족 씨름판에 모여 힘을 거두었고, 우승한 사람에게는 황소 등의 상품을 주었다. 즉, 민속 씨름은 농경을 증시하던 우리 민족의 생활과 깊은 연관을 가지며, 오랜 세월동안 민족의 놀이자 서민들의 축제의 장으로써 편안히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그러나 현시대의 민속 씨름은 시대의 변화에 관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점점 외면 당하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민속 씨름계의 조직내분과 KBS의 중계 취소로 지난 2005년 추석 대회 이후 제대로 된 국내 대회를 열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단각한 고사 위기에 내몰려 있는 것이 민속 씨름의 현 주소이다. 이는 민족 씨름협회의 이해력과 각 조직들의 웅직임의 부족이 결합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다른 여타 스포츠는 시대에 따라 경기 방식과 대회운영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에 민속 씨름은 변화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 또한 민속 씨름의 지도자들은 엣 구습만을 고수함으로 인하여 민속 씨름의 대회운영과 기술 발전은 수 십 년간 정체되어 있었다. 게다가 유명(有名)한 선수들의 선발과 재력관리, 기술 습득, 전술을 개발해야 할 민속 씨름의 지도자들의 능력 부족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민속 씨름의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적절하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팀 운영의 후원자 및 선수들의 보호·통제자로서, 나아가 선수들에게 정청한 민속 씨름의 신체(身體)의 일체는 참소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민속 씨름은 태풍의 눈 속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곤산산이 부서져 사라질 수도 있는 심각한 존재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스모(相撲)는 민속 씨름과는 대조적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전통 문화에서 벗어나가는 젊은 세대의 관심을 향후는 물론 미래의 팬인 어린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방법을 통해 다시 이끌어내고 있다. 일본 스모(相撲)협회에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자주 방문해 스모(相撲)가 어떤 민족 경기인지를 직접 연속을 선보이고, 학교에 ‘도호(도호)’(相撲)경기장관을 가꾸거나, 코쿠건(國技)관에서 무료로 대회를 개최하여, 자연스럽게 미래의 팬을 확보하고 있다(서울신문 이재훈, 2005).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장년층 관중이 대부